

[기획] >> 4면
국제교류프로그램, 고려해야 할것

[기획] >> 5면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문화] >> 8면
청와대국민청원, 왜곡된 흐름

[학술] >> 9면
소셜미디어, 공유와 협력



다양한 언어를 교육하는 우리학교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일되지 않은 성적 평가 방식 △현지 학교의 미흡한 학생 복지 등 고려해볼 만한 문제 또한 지니고 있다. 귀국보고서를 토대로 유학길에 오르기 전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과 우리학교의 방침을 자세히 살펴봤다.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서울캠 총학 푸름, 지지 성명문과 함께 판문점 선언 5개 언어로 번역

총학생회(이하 총학) 푸름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70년 분단이라는 아픔의 역사에 붙어오고 있는 평화의 바람을 맞이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외국인 학우분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언어로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번역해서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학은 “판문점 선언 번역 선례가 있지만 우리 힘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번역하는 과정은 학생의 사회 참여가 생기를 뿜 수 있게 하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번역 취지를 설명했다. 번역문은 우리학교 재학생들이 번역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총 5개의 언어로 번역됐다.

총학은 번역문과 함께 “70년 분단의 역사, 평화의 울림은 지속하여야 합니다”라는 지지 성명문을 게시했다. 총학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한반

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70년 전쟁의 아픈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금 온 겨레가 평화의 축복아래 범국민적 번영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안중현 총학생회 회장은 “많은 학우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며 “그 관심에서 더 나아가 함께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학생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 학생들은 과거 시국선언문을 10개의 언어로 번역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우리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201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해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우리학교 김인철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장으로 선임

지난달 6일, 김인철 총장이 제20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2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2년의 임기 아래 김인철 총장은 2020년 4월 7일까지 사총협 회장직을 겸임할 예정이다.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총회에는 사총협 소속 153개 교 회원 총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김 총장은 1988년부터 우리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4년 우리학교 총장에 선출된 뒤 이번 해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사총협은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대적 소명이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총협은 결의문을 통해 “대학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

정과 사립대학에 대한 일반 재정의 지원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사립대학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에 재정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기초부터 고급까지!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실용 회화능력 집중 향상!
국내 최고의 외국어마스터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2018년 상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과정소개]

FLC 외국어교육과정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해외연수 및 유학준비생, 인사혁신처 추천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회사원, 그 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교육을 통해 실제 의사소통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켜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외국어마스터 과정으로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1. 교육일정

[10주 주간/야간 정규과정 :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균형있는 통합교육]

구분	주간	야간
접수기간	2018. 06. 11(월) 부터~	
교육기간	2018. 08. 06(월) ~ 12. 21(금)	
교육시간	09:30~16:20	18:40~21:30
총 교육시간	1월 6시간/월~금/주5월 총 600시간	1월 3시간/월~금/주5월 총 300시간
반면성시험 (Level Test)	07. 21(토) 예정 (영소·외국어연수평가원)	
교육비	3,737,000원	1,821,000원

[10주 야간회화과정 : 단기간 실용 회화능력 집중 향상 교육]

구분	야간 11기	야간 116기
접수기간	2018. 06. 25(월) 부터~	2018. 09. 03(월) 부터~
교육기간	2018. 08. 06(월)~10. 12(금)	2018. 10. 15(월)~12. 21(금)
교육시간	19:40~21:30	19:40~21:30
총 교육시간	1월 2시간/월~토/주4월 총 80시간	1월 2시간/월~토/주4월 총 80시간
반면성시험 (Level Test)	07. 21(토) 예정	10월 초(별도공지)
교육비	일반인: 594,000원 외대생(동문): 482,000원	일반인: 594,000원 외대생(동문): 482,000원

[10주 주말특별과정 : 단기간 실용 의사소통능력 집중 향상 교육]

구분	주말(토)
접수기간	2018. 06. 11(월) 부터~
교육기간	2018. 08. 25(토)~11. 03(토)
교육시간	10:00~17:00/토 6시간/토요일주1회 총 60시간
반면성시험 (Level Test)	08. 11(토) 예정 (영소·외국어연수평가원)
교육비	671,000원

※단, 위 교육비는 일반인 기준의 교육비이며, 인사혁신처 추천 공무원 및 별도 위탁교육생의 경우 교육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문의

2. 교육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마인어 외
- 과정별 특성에 따라 모집언어는 다를 수 있으며 모집공고시 자세한 교육언어 참조
- 언어/레벨별 적정인원 모집시 개설되며 모집인원 미달시에는 개설되지 않음

3. 교육대상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해외연수 및 유학준비생, 인사혁신처 추천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그 외 일반인 등 제한없음.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

- STEP 2: 접수확인

- 과정진행 절차: 수강신청-교육비결제-레벨테스트-반면성시험-개강회
- 수강신청 바로가기-과정 및 언어신청-원서작성-교육비 결제
-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 교육비 결제: 인터넷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가능
- 수강신청 및 교육비 결제 완료 후 최종 접수여부 확인
- 무통장 입금의 경우 반드시 본인명의로 정확히 입금 후 입금확인

5. 반면성 시험(레벨 테스트)

- 시험내용: 독해, 인터뷰
- 독해는 영어 30문항 내외, 기타 외국어 40~50문항
- 인터뷰는 1:1 면대면 인터뷰로 진행되며 약 5~10분 소요
- 단, 총 소요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시간 30분 소요
- 반면성 시험은 개인별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시험으로 당락은 없음
- 반면성 시험의 내용, 구성, 진행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취소 및 환불안내

- 개강일 전까지: 전액환, 전행로 제외 환불 ※공통
- 20주(주간/야간): 개강 후 6주까지 교육비-전행로×60% 환불
- 10주(야간): 개강 후 2주까지 교육비-전행로×70% 환불
- 10주(주말): 개강 후 3주까지 교육비-전행로×70% 환불

- 환불시 소정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며 환불기간 이후 일체 환불이 되지 않음
- 반면성시험(Level Test) 이후 환불시에는 전행로(30,000원)가 공제됨
- 환불시 홈페이지(자세한공지사항) 등록취소신청서 작성 후 개첨본 함께 제출
- 환불신청 후 실제 환불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됨

7. 기타사항

-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반면성 및 맞춤수업
- 언어별 특성 및 교육생 레벨에 따라 수업시간, 교과목은 다르게 편성됨
-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신청 외 인사혁신처 추천 및 기관, 기업체 위탁교육 신청의 경우 별도 문의
- 정규과정 외 기관 및 기업체를 위한 맞춤형 위탁과정 상시개설
- 기관 및 기업체 위탁과정의 경우 인원제한은 없으며 교육기간, 요일, 시간 등 자유설계 가능
- 과정 수료시 수료증 발급, 과정별 수료요건출결 및 평가 별도 문의

8. 문의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02-2173-2524-5 FAX.02-962-0575
http://fltc.hufs.ac.kr | www.facebook.com/hufsltc | fltc@hufs.ac.kr

FLC PROGRAM

20주 주간/야간과정 : 2월, 8월 개강 | 10주 야간과정 : 2월, 4월, 8월, 10월 개강 | 10주 주말과정 : 2월, 8월 개강 | 방학특별과정(겨울/여름) : 1월, 7월 개강 | FLCS시험 대비과정(공무원유학시험대비) : 3월, 9월 개강 | 대학원외국어시험대비과정 : 3월, 9월 개강 | 통번역기초과정 : 3월, 9월 개강 | DELTS시험준비과정 : 시험일 기준 2개월 전 개강 | TOMER테라피과정 : 2월, 4월, 8월, 10월 개강 | 기업체·기관 위탁과정 : 수시 개강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OREIGN LANGUAGE TRAINING AND TESTING CEN

제2회 우리학교 해외동문연합 총회 개최

우리학교 해외동문연합회가 지난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2회 우리학교 해외동문연합 총회를 개최했다. 해외동문연합 총회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지역별 동문회를 하나로 통합한 총회로 전 세계 해외동문들 간의 교류와 화합이라는 목표로 격년제로 진행된다. 뒤를 이어 제3회 정기총회는 2020년 4월 중 중국 상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6개국 약 130여명의 해외동문들이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이호덕 해외동문연합회장은 “잠재력의 나라, 기회의 남방 땅 인도네시아에서 제2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계 곳곳에서 뛰어난 현지어 실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의 리더로 우리학교를 드높이는 동문들이 자랑스럽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이덕선 이사장은 “세계에서 눈부시게 활약하는 13



만 동문들 모두 자랑스럽다”며 “전 세계의 동문들이 해외동문연합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문으로서의 깊은 우의를 나누고 이심전심으로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자”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김인철 총장은 “해외동문연합회를 통

해 국내외에서 활동하시는 자랑스러운 13만 동문 여러분들의 상호간의 네트워크가 더욱 돈독해지고 동문들의 자긍심과 학교에 대한 사랑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우리학교의 발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동석 총동문회장은 “대학과 총동문회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가는 통로로 동문 멘토링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외 동문들의 동문 멘토링 멘토 참여를 권유하는 것으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창범 주인도네시아대사와 김영재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특강이 이뤄졌으며 학교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형성됐다. 또한 미국 남가주 동문회에서는 스마트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2만5천불을 쾌척하며 총회를 빛냈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우리학교, 2020학년도부터 정시 확대 및 수시 최저학력기준 폐지

우리학교가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시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수시모집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입학처는 지난달 10일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시모집 인원을 2019학년도와 비교해 2% 증가한 1224명으로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9학년도 보다 70명 증가한 수치로 2020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36.2%를 차지하게 된다. 이로써 2019학년도 65.2%의 선발 비중을 차지하던 수시모집 비율

이 2020학년도에 63.4%로 감소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검정고시 합격생△국내 학력인정 국제학교 졸업생△해외고교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글로벌캠퍼스 바이오메디탈공학부 수학·과학특기자전형은 폐지된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4.19혁명 58주년 기념행사 개최돼



지난 달 19일, 우리학교 본관 1층 119호 윤강로 세미나실에서 4·19 혁명 58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엔 △김인철 총장△김봉철 학생·인재개발처장△류제봉 4·19 민주혁명 동지회 회장△임대근 홍보실장 및 관련부서 팀장 △박명석 동문△안중현(서양어·독일어·16)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전병수(영어·영문·16)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른 구 대외협력처장의 사회 하에 진행된 행사는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애국가 제창과 묵념으로 시작됐다. 뒤를 이어 4·19 민주화 혁명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참석자들의 연설과 축사가 진행됐

다. 축사에서 김인철 총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며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4·19 민주혁명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 또한 함께 진행됐다. 서울캠퍼스에선 이택규(사회·정의 17)씨, 글로벌캠퍼스에선 박수빈(자연·화학 14)씨가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기념행사가 끝나고 우리학교 미네르바 동산에 있는 4·19 기념비를 찾아간 류제봉 회장 및 동문들은 당시의 혁명을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산 기자 96mountain@hufs.ac.kr

서울캠 총학생회 어버이날 맞아 행사 진행해



우리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학내 노동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총학은 △본관△교수회관△도서관△국어연수평가원등을 포함한 모든 건물의 경비실과 인문관 학생식당을 찾아가 ‘어머님·아버님’은 우리학교 학생들의 힘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부착된 음료수와 떡을 전달했다. 총학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버이날을 맞이해

우리학교를 위해 고생하시는 교내 노동자 어머님·아버님들을 찾아뵈었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우리학교 총학생회 ‘푸름’은 지난 달 13일 제52대 총학생회로 당선됐으며 이번 달 29일 잔디광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켜켜이 쌓인 역사, 우리학교 개교 64주년

1954년 4월 20일 이래로 우리학교가 개교 64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울캠퍼스 애경홀에서 ‘개교 64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김인철 총장은 기념사에서 “우리학교가 최근 발표된 ‘2018년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별 평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업적을 언급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앞에서 대학교육은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전 분야가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초학제연구(Transdisciplinarity)에 합당한 학제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며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함께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명석 진석실업 회장과 박병철 Everest Trading Corp 회장이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HUFSAwards’를 수상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학교 법인 동원육영회가 학교 교육 발전에 공헌한 남지순 언어인지와 학교 교수에게 ‘동원(東園)교육상’을 수여했다.

같은 날 역사관은 서울캠퍼스 역사관 전시실에서 ‘개교 64주년 기념 기획 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 ‘靑年외대, 세계와 호흡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역사관 기획 전시는 사진과 기록으로 개교 이후 1970년대까지 우리학교의 청년시기와 학내 구성원들의 활약상을 담았다. 개막식에는 △김종철 이사장△김인철 총장△민동석 총동문회장 등 교내 주요 인사와 △이덕선 해외동

문연합회 이사장△오순명 여성동문회장△양인모 전 총동문회장 등이 참여했다. 역사관 기획전시는 이번 해 하반기까지 역사관 주제전시실에서 준상설 전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 직후, 우리학교 60여년의 역사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역사책 ‘HUFStory-외대, 세계를 품다’의 발간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축하 케이크 cutting·소화식으로 시작된 행사에는 30여명의 교내·외 인사뿐만 아니라 출판 작업을 직접 담당했던 △신정아 집필자△김종덕 편찬자문위원장△여호규 역사관장△가정준 지식출판원장 등도 참석하며 자리를 빛냈다.

한편, 그동안 우리학교는 △‘외대 4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50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60년사 등을 발간해 학교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왔다. 개교 64주년을 맞아 발간된 ‘HUFStory-외대, 세계를 품다’는 기존의 우리학교 역사서에 비해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 형태로 기획된 역사서다. 지난날 우리학교는 어문학과 지역학이라는 고유 가치를 중시하고 발전시키며 그에 기반한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썼다. ‘HUFStory-외대, 세계를 품다’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학교의 정신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제 37회 외대 월드컵’ 진행돼



3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12일 간 총 31개 팀의 참여 하에 제37회 외대 월드컵(HUFSA World Cup)이 열렸다. 우리학교 재학생들이 직접 주최한 이번 월드컵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지원하는 HUFSA 12 번째 태극전사 구호 아래 진행됐다. 월드컵기간 동안 3미터 가량의 응원 게시판에는 △학생△교수△직원 등 우리학교 구성원이 다양한 외국어로 작성한 16강 진출 기원 메시지가 게시됐다. 결승전에 앞서 재학 중인 외국인 학

생(ISO)으로 구성된 ‘HUFSA World All-Star Team’이 러시아 월드컵 참가국들의 유니폼을 입고 우리학교 축구부와 친선 경기를 진행했다. 또한 이벤트 경기 전 HUFSA 12 번째 태극전사 가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을 지원하는 의미를 담아 러시아 월드컵 참가국 국기를 들고 응원전을 펼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최종 우승팀의 영예는 독일어과에게 돌아갔다.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우리학교 – Metro TV 인도네시아 장학생 협약 체결

지난달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자카르타 Metro TV 본사에서 우리학교와 Metro TV가 주최한 인도네시아 장학생 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다음 해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에서 선발된 고등학교 졸업생 2명은 우리학교에서 4년간 공부하며 △학비△기숙사비△체제비 전액을 제공받는다. 학비와 기숙사비 등의 비용은 모두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4년간 체제비(왕복항



공료 포함)는 Spotee 회사의 홍권표 대표가 지원한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인철 총장△이은구 대외협력처장△고영훈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이호덕 해외동문연합회 회장△홍권표 우리학교 인도네시아동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젤코 라이너 크로아티아 국회 부의장 글로벌캠퍼스 방문

지난달 30일 월요일, 다미르 마틸란 젤코 라이너 크로아티아 국회 부의장 및 마리아나 발리치 크로아티아 국회 의원이 글로벌캠퍼스를 방문했다.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학생들의 특별 공연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이날 젤코 라이너 부의장은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Parliamentary Diplomacy in the Function of Foreign Policy Priorities of the Republic of Croatia”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강 후 진행된 티타임에는 △김정환 동유럽대 학장△김철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학과장 및 처장단 등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우리대학은 현재 4개의 크로아티아 대학교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교환학생 7+1 프로그램△아너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학 시스템으로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서울캠 진로취업지원센터, ‘2018년 현직 선배와 함께하는 JOB 코칭데이’ 성황리에 끝마쳐



지난 1일 화요일, 서울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서울캠퍼스 오버마홀에서 ‘2018년 현직 선배와 함께하는 JOB 코칭데이(취업 선배 따라 job)’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의 주관 아래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 후원하며 원만한 진행을 도왔다. △광고△금용△물류△여행△제조△제조업계 등을 총망라한 △국내 우수 기업△외국계 기업△공공·행정기관 등 국내외 약 70여 개 기업에 재직 중인 선배와 취업을 앞둔 재학생이 참여해 함께 직업을 탐구하고 진로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 진로취업센터는 취업 후 2년에서 8년간의 실무경력을 가진 현직 선배를 초청해 재학생과의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동문들은 학생들과 △기업△업종△직무에 대한 현직자의 시각을 설명하고 생생한 취업 성공 경험을 전수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기타 부대행사로 △이력서 사진 촬영△면접메이크업 클리닉 등의 무료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상담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워크숍 열어



지난달 20일 금요일, 동대문 JW메리어트 호텔 동대문 1 회의장에서 우리학교 인도연구소가 ‘2018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워크숍’을 주최했다. 이 행사는 ‘인도의 대전환과 인도학의 한국적 재해석’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업단에 참가하고 있는 △일반연구원△HK연구교수△연구보조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안전 수행성과 향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찬완 단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오전 세션에는 △인도

의 대전환과 인도학의 한국적 재해석: 7년 총괄 개요(김찬완 단장)△연구 안전(김형준 HK연구교수, 연구 안전 총괄팀장)△지역인문학센터, 간디아슈람(박규표 HK연구교수, 간디아슈람 총괄팀장)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 세션은 △종교/철학△언어/문학△역사△사회문화△정치/경제 총 다섯 개의 분야에서 ‘분과별 보고 및 평가’ 회의가 열렸다. 이어 분과별 논의 결과를 종합하는 종합토론(좌장 김찬완 단장)으로 행사가 끝을 맺었다.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장모네 EU센터, 국제학술회의 개최



지난달 27일 금요일,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 스위트에서 우리학교 장모네 EU센터가 유럽연합과 외교부의 후원 아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NAPCR)와 EU-동아시아관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마이크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마상윤 외교부 정책기획국장△프랑스 부대사△이탈리아 부대사△네덜란드 부대사△폴란드 부대사 및 정부참사를 비롯해 △

유럽△미국△우리나라△중국△일본 학자들이 참여한 행사는 활발한 발표와 토론의 장이 됐다. 이날 회의에는 백여 명이 참석해 현 정부의 다자협력 노력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우리학교 관계자는 “유럽과 동아시아의 관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개최하는 본 행사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아랍어과, 주한 쿠웨이트대사 특강 열어



지난달 10일 화요일, 우리학교 아랍어과가 우리나라-아랍 소사이터와 공동으로 H.E. Bader Mohammad Al-Aawadi 주한 쿠웨이트 대사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서 Al-Aawadi 대사는 쿠웨이트의 △사회△문화△외교 정책 중 특히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NGO 활동에 대해 강의한 후, 학생들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특강 전 Al-Aawadi 대사와 아랍어과 교수들 간 이루어진 면담에서는 쿠웨이트 대학과 우리학교 아랍어과 간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의가 이뤄졌다.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국제교류 프로그램...지원 시 고려해야할 점은?

우리학교가 지난해 조선일보·QS 아시아대학평가 국제화 부분에서 국내 1위, 아시아 14위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학교가 어문학·지역학을 기반으로 특수지역 외국어를 포함한 45개의 언어를 교육 하며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학교는 496개 대학, 93개 국가, 51개 기관과의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학생들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국제적 마인드 함양 및 국제적 인재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또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언어를 교육하

는 우리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통일되지 않은 성적 평가 방식스 현지 학교의 미흡한 학생 복지 등은 생각해야할 문제 또한 가지고 있다. 교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학생들의 의견을 근거로 유학길에 오르기 전 고려해야할 사안과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살펴봤다.

◆우리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우리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크게 △학위과정△정규학기과정△방학·휴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위과정에는 복수학위제도와 학석사 연계과정이 있다. 정규학기과정에는 △교환학생 제도△7+1 파견학생 제도△자비유학 제도 등이 있고, 방학·휴학 프로그램은 △해외연수/계절학기 제도△국제어름학기(ISS)가 있다. 그 중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단연 △교환학생 제도△7+1 파견학생 제도△해외연수·계절학기 제도다.

‘교환학생 제도’란 학생 및 학점교환에 관해 타 대학과 상호협정을 맺은 후, 자매대학 학생과 우리학교 학생을 일정 기간 교환해 수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 기간 동안 자매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는 우리학교에 등록금을 지불한 후 자매대학에서 수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한 학기 프로그램과 두 학기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학점: 총 평점 평균 3.0이상(지원 학교에 따라 더 높은 학점을 요구할 수 있음)
- 2. 어학 성적: 파견 대학별 기준 요구 어학 성적 이상 보유(신청 시점은 물론 해외대학 파견 시점까지 유효해야 함)
- 3. 신청 가능 학기: 한 학기 프로그램 지원자는 신청시점 기준 2~5학기(또는 6학기 수료 후 휴학생), 두 학기 프로그램 지원자는 신청시점 기준 2~4학기(또는 5학기 수료 후 휴학) 수료생이어야 함.

선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영어권: 1월, 7월
- 2. 중국어권·일본: 2월 중순, 8월 중순
- 3. 그 외 국가: 2~4월, 8~10월(학과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과사무실에 문의할 것)

※유의 사항

- 1. 이전 국제교류팀 선발 국제교류 프로그램 취소자는 지원 불가
- 2. 재학 중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최대 2개 정규학기에 한해 학점 인정 가능 (단, 편입생은 1개 학기에 한해 학점 인정 가능함)

‘7+1 파견학생 제도’란 학생들이 8학기의 재학 기간 중 최소 한 학기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해 재학생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현재 연간 800명의 7+1 파견학생을 선발해 해외 우수 대학에 파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교환학생 제도와 달리 외국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선발 파견학생△학과선발 파견학생△우수성적 파견학생 총 3가지의 전형이 있다. 학교선발 전형은 영미권 국가 파견이며 학기당 약 10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학교선발 전형은 모든 언어권 국가 파견이며 학과 크기에 따라 인원을 배정한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공통 지원 자격〉

- 1. 학점 평점평균 3.0 이상
- 2. 신청시점 기준 2~5학기 수료생(또는 6학기 수료 후 휴학생)

〈학교선발 전형〉

- 1. 선발 기준: 학점 100점+영어성적 100점+인성 면접 100점+수학계획서(P/F)
- 2. 지원 방법: 국제교류팀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지원
- 3. 선발 시기: 매년 1~2월, 7~8월에 선발

〈학과선발 전형〉

- 1. 지원 방법: 학과 공지사항 확인 후 지원
- 2. 선발 시기: 매년 3월, 9월 초

〈우수성적 전형〉

- 1. 선발 기준: 선발인원에 제한이 없어 자격조건을 유지할 경우 자동 선발
- 2. 지원 방법: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의 우수성적 대상자 명단에서 본인 확인 후 본인 소속 1전공 학과 사무실에 우수성적 파견학생 대상으로 신청
- 3. 선발 시기: 매년 3월, 9월 초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제도’란 방학·휴학 중 외국 4년제 대학에서 수학 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해외연수의 경우 외국 4년제 대학 부설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학점을 인정받으며, 해외계절학기의 경우 외국 4년제 대학 학부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다.

- 1. 선발 기준: 우리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라면 누구든 가능
- 2. 지원 방법: 해외 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를 국제교류팀에 제출
- 3. 선발 시기: 방학 전 (단, 영어권 해외연수는 교양학점으로만 인정가능 함)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시 고려해야할 사안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학과장 재량의 성적 인정 방식과 자매학교의 미흡한 학생 복지는 많은 학생들이 제기하는 문제다. 우리학교는 학생 소속 전공 학과장(교양 과목의 경우 교양대학장)의 재량에 따라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 인정이 이뤄진다. 과별로 상이한 학점 인정 기준은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어렵게 혹은 쉽게 성적을 취득하는 불공평한 경우를 초래한다. 국제지역대학 소속 박씨는 “학과장의 재량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점에 불만을 느꼈다”며 “학점 인정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수강했고 시험을 치는 빈도도 잦았다. 이 때문에 귀국 후 학점 인정을 받을 때도 박씨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반면 K씨의 경우 한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A+의 성적을 받았으며, 귀국 후에도 만족스러운 학점을 받았다.

미흡한 복지 제도 또한 많은 학생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다.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귀국보고서에 따르면 라트비아에 위치한 한 자매 학교는 기숙사 없이 학교가 계약한 기숙사 용도의 호스텔을 운영했다. 하지만 두 숙소 모두 치안이 좋지 않아 학생들이 강도에게 도난을 당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등 시설 관련 문제가 발생해 학생들이 이사를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다사

관이나 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은 한정적이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귀국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한 학교의 기숙사는 매우 열악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고 생활하며 오기 전 어디서 거주할지 정하고 올 것을 당부했다. 위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현지의 부족한 학생 복지를 언급했다.

◆학교 측의 입장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김재경 국제교류팀 과장은 학점 인정 부분에 대해 학과의 고유 재량임을 언급하며 국제교류팀이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도움이 없다고 밝혔다. 김과장은 “학생들이 시험으로 성적을 부여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듯, 성적을 부여하는 것은 학과 고유의 재량이기 때문에 학과장이 성적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부분은 학과 자체에서 학생들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국제교류팀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유럽권 대학이 미국 대학보다 성적을 취득하는데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학과의

실정에 맞게 성적을 변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기숙사, 수강 신청 및 인종 차별 등의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 국제교류팀은 자매학교에 바로 연락해 문제 해결이 완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점 인정 제도는 학과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했던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타지에서 발생하는 학생 복지 문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과 학교, 학교와 학교 간 원활한 소통이 이어져야 할 시점이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www.korean.ac.kr

2018학년도 여름학기(제42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원양성과정(KFL)

- 국내 유일의 언어권별(영, 중, 일) 맞춤형 이론 수업 진행
- 실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실습 수업 실시
- 40년 전통의 한국어교육의 산실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의 노하우 전수
- 한국어교육 권위자 허용 원장(Marquis Who's Who 등재) 직접 강의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 제공
- 우수 수료자 대상 본 원 강사 채용 시 가산점 부여

2018학년도 여름학기(제42기) 신입생 모집안내

교육일정
2018년 6월 25일(월) ~ 7월 27일(금) 월~금 / 9:30 ~ 17:00 (총 130시간 과정)
원서접수 및 지원자격
원서접수 : 2018년 5월 28일(월) ~ 6월 11일(월)
지원자격 : 고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단,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TOPIK 6급 소지자)
접수방법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상세 내용 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www.korean.ac.kr)
전형료 : 20,000원
등록금 : 1,415,000원(교재비 포함)
문의처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외국어연수평가원 101호)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전화 : 02-2173-2260 / 이메일 : ckface@hufs.ac.kr

영문으로 신청하시면, 안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CENTER FOR KOREAN LANGUAGE & CUL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 발표

지난 3월 21일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이하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기존 8개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 및 4개 사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리학교가 2016년부터 유치중인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을 포함한 5개 사업이 다음 해부터 일반재정지원 분야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개편안은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

영된 후 다음 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개편의 구체적 내용△개편이 갖는 의의△우리학교가 추진한 재정지원사업 등 전반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개요와 전망에 대해 알아 보자.

◆무엇이 바뀌는가……. 개편 전 재정 지원사업

정부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2000년대 초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번 개편 대상 사업은 재정지원사업 중 주요사업 8개로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대학특성화사업(CK)△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글로벌박사양성사업(BK21+)이다.

기존의 재정지원방식 또한 개편 대상이다. 개편 전 사업은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으로 진행됐다. 사업 목적과 대학 선정·평가의 기준에 따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들 중 적합한 학교들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사업 종류에 따라 예산 사용처를 세부 편성해야하며 예산을 주어진 사용처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을 반환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어떻게 바뀌나……. 개편 후 재정지 원사업

주요 8개 사업이 3개 유형(△국립대학△일반재정지원△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대학혁신지원△산학협력△연구지원)으로 개편된다.

국립대학유형은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기존 PoINT사업(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특수목적지원유형은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산학협력사업'과 '연구지원사업'만을 진행한다.

일반재정지원유형은 재정 확충을 통한 대학 기본역량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 유형은 기본역량 가운데 특히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에 주목한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해 기존 유사·중복 사업 5개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대학특성화사업(CK)△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를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이를 다시 자율협약형(I유형)과 역량강화형(II유형)으로 구분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구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상위 60%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I유형에 배정되며 약 30억원에서 90억원을 지원받는다. 차상위 20%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면 II유형에 배정돼 정원 감축 등을 조건으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재정 지원에서 제외된다.

개편 후 재정지원방식은 대학 주도의 상향식(Botton-Up)으로 진행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선자율 후책임' 원칙에 따르면 대학은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에 있어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성과협약을 통해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왜 바뀌나……. 개편의 원인

재정지원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대학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지표와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대학이 교육부의 기준에 일방적으로 맞춰야 하는 방식 상의 문제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 계획 수립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재정 지원이 시급한 대학이 교육부의 평가 지표에 맞추려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학과 구조조정을 시행한 것 또한 문제가 됐다. 많은 대학이 정부 차원의 등록금 동결 압박 및 입학금 폐지로 인해 재정이 부족했다. 부족한 재정으로 학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대학은 모자라는 자금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내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몇몇 대학은 사회수요가 저조한 학과를 일방적으로 통폐합했다. 이는 사회수요에 맞춰 정원을 조정한 대학이 재정지원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학내 구성원 간 마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결여됐다는 것을 방증했다. 결과적으로 재정 지원이 시급한 대학이 사업에 선정되는데 급급해 기존 사업의 취지와 방식을 숙고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교육부는 재정지원대학의 조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확정 과정에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사항이 각 대학의 특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대학별 특성이 고루 반영되지 못해 한정적인 분야의 재정지원사업이 만들어졌다. 교육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특성화 분야는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의 지원조건 확정은 대학 특성화를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6년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외국어 교육 특화 대학임에도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 뚜렷한 혜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신흥국 간 교류가 점점 늘고 있지만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특수 언어 육성’ 관련 사업이 없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BK21+, CK, CORE……. 우리학교 가 참여하는 재정지원사업

우리학교는 글로벌박사양성사업(이하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창의성 기반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조경제를 실현할 석·박사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 사업과 관련해 우리학교는 현재 한

중언어문화소통사업단'과 '에스닉-코리아타운 도시재생전문인력양성사업단'을 유치 중이다. 한중언어문화소통사업단은 2013년 우리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가 인문사회 '외국어와 문학' 분야에 선정되며 출범했다. 에스닉-코리아타운 도시재생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우리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특화전문인재양성형(인사) '문화콘텐츠1(인사)' 분야에 선정되며 출범했다. 각 사업단은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논문 발표△국외저명교수초청특강 및 세미나△국제워크숍 및 단기해외연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는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이하 CK사업)에 글로벌캠퍼스 국제지역대학의 '로컬리티(Locality) 기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이하 L-사업단)'이 선정돼 해당 사업단을 유치 중이다. CK사업은 지역사회 수요에 맞춰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체질개선과 특성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L-사업단은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 6개학과 △프랑스학과△러시아학과△브라질학과△중앙아시아학과△인도학과△한국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단은 로컬리티 역량을 갖춘 선도형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학술지원사업△교재개발사업△산학연계인턴십 등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편 우리학교는 2016년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이하 CORE사업)에 탈락했으나 추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CORE사업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인문학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문학을 육성하는 대학이 재정을 지원받는다. 지원 액수는 사업 계획과 규모 등에 따라 매해 36억씩 3년간 최대 약 108억원이다. 우리학교 CORE사업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사업단은 △소통과 주체의 인문학△세계지역문화의 상호소통과 교류 활성화△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인문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학업지원금(CORE Scholarship)△해외·국내 인턴십△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Creative Core)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사업은 다음 해 2월을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으로 이에 해당 사업의 성과 및 평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어떻게 될까……. 개편의 전망과 우려

이번 개편으로 대학이 자율성을 회복하고 대학별 특성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대학이 사업 선정 과정과 사업 이행 과정 모두를 자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사업에 재정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해 대학에 지원된 재정 약 1조 676억원 중 상위 20개 대학이 가져간 금액은 4630억원으로 이는 총 액수의 43%에 달했다. 수도권 사립대나 지방 거점 국립대가 더 많은 재정을 지원받는 현상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 숫자 또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강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또한 “대학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 만큼 지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진 기자 95howcuty@hufs.ac.kr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2018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석사과정]
한국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인도네시아학과, 중동아프리카학과, 러시아CIS학과
유럽연합학과, 미국캐나다학과, 중남미학과, 국제개발학과, 국제학과
[박사과정]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 국제관계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

◆특징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장학금(전원 지급, 등록금 20~30%)
-학과별 추천장학금(학기별 선발, 등록금전액)
-본교출신 조교 장학금 제도(학기별 선발)
-성적 장학금(재학생 80% 수혜)
-외부기관 장학금(POSCO, KIEP-GPAS 등 다수)
-3+1제도(재학생 1학기 외국대학 수학 후 학점인정)
*석사과정 비논트랙 운영(일부학과 제외)

◆원서접수

구 분	2차모집
원서접수	5.17(목)~5.25(금)
면접일	6.9(토)

◆문의처

TEL : 02)2173-2448, 2449
Website : http://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ICTY 임무 종료, 유고 전범 문제 해결과 과거사 청산 기틀



김철민 교수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ICTY 설립 의미와 활동 내용

2017년 12월 31일, 지난 24년 동안 유고 내전과 보스니아 내전 전범 문제 해결 및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제 사회 공식 기구인 ‘구(舊)유고슬라비아 국제형 사재판소(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가 그 임무를 종결했다. 국제 사회는 보스니아 내 민족 간 화합과 미래 평화 정착을 위해 유고 내전과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 청소를 저지른 전범들의 소환과 문제 해결 그리고 이를 통한 불행했던 과거사 청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왔다.

보스니아의 영구적 평화와 민족 간 화해의 초석을 다지려 했던 국제 사회의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ICTY 설립이다. ICTY는 1993년 5월 25일 ‘UN안보리결의 827항(UNSCR 827: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7)’에 근거해 헤이그에 재판소가 수립됐고, 1991년 유고 내전부터 이어진 구(舊) 유고 지역 전쟁 범죄자들의 재판을 진행했다. ICTY가 다룬 중요 범죄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 ‘대량학살(Genocide)’, △ ‘인권유린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 ‘전쟁 관습 혹은 법률 위반(Violation of Law or Customs of War)’, △ ‘제네바 협약의 중대위반(Grave Breaches of the Geneva Conventions)’ 등이 있다.

ICTY는 2011년 7월 20일에 체포된 고란 하쥐치(Goran Hadžić, 1958~2016/ 크로아티아내 크라이나 krajina 세르비아자치 공화국 대통령)를 마지막으로 총 161명의 전쟁 범죄자를 체포 기소했다. 지난 24년 동안 이어진 기간 동안 52개 UN회원국으로부터 총 86명의 판사가 재판소에 임명됐으며, 대한민국에선 권오곤 재판관(ICTY 재임 2011. 11~2016. 3/ 총회 의장 2017. 12~)이 신(新)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šević, 1941~2006) 재판과 내전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스프스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던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 Karadžić, 1945~) 재판에 참여했다. 헤이그 법정에선 1996년 11월 첫 선고 후 90명에게는 유죄가, 19명에게는 무죄, 37명은 기소 유예가 선고됐다. 기소된 전범 중 13명은 구(舊)유고 각 지역 재판소(보스니아 10명, 크로아티아 2명, 세르비아 1명)로 이관됐으며, 유죄 선고자 중 20명은 공소가 취소됐고 밀로셰비치 등 17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 전 사망했다. ICTY는 10,800일의 활동 기간 동안 4,650명의 증인과 250만 페이지의 재판 기록들을 남겼다. ICTY는 2017년 12월 22일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 총사령관이었던 라트코 므라디치(Ratko Mladić, 1943~)에게 종신형이라는 최고형, 12월 27일 공포의 여성 고문 기술자란 별칭으로 세르비아계를 고문 학살했던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계 아즈라 바쉬치(Azra Bašić)에게 14년 형을 선고하고 12월 31일 공식적인 업무를 마감했다.

24년 활동을 마친 ICTY의 임무는 시리아 내전의 각종 전쟁범죄 등이 맞물려 상설 전범재판 기구가 된 ICC로 그 역할이 전이됐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ICTY의 활동에 대해 전범 단죄라는 중요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 또한 상존한 것도 사실이다. 첫째, 장기 재판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속출했다는 점. 둘째, 막대한 재판 지불 비용에 비해 재판의 가치와 실효성이 의심받았다는 점. 셋째, ICTY 전범재판들이 과거 국제 관계 속 역사처럼 여전히 승자와 강대국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을 들 수 있다.

민족 화해와 화합 관점으로 본 ICTY 역할론

보스니아 내 민족 간 화해와 화합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ICTY 역할과 그 임무를 향한 비판 중 특히 세 번째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스니아 내 각 민족에게 있어 ICTY의 역할과 내전 당시 전범 규정의 의미를 바라보는 시각과 견해는 보스니아의 복잡한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만큼 매우 다양한 게 사실이다.

ICTY 판결과 국제사회의 시각과는 달리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계와 이웃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세르비아로부터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본토 크로아티아의 ‘조국해방전쟁(혹은 독립전쟁 War of Independence/ Rat nezavisnosti)’ 관점과 연계하

여 내전을 바라보고 있으며, 따라서 전범으로 기소된 크로아티아 피의자들을 자민족을 보호해 준 ‘영웅(Hero/ Heroj)’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보스니아세르비아계와 세르비아 본토에서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1995년 미국 중앙정보국은 보스니아 내전 동안 발생한 전쟁 범죄의 약 90%가 보스니아세르비아계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발표했지만 세르비아에선 그 전범들이 실제로 세르비아인들과 그들의 자유를 지켜주던 영웅이라 평가내리고 있다.

하지만 ICTY 활동을 향한 비판들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의 향후 평화 정착 관점에서 봤을 때 ICTY 역할과 그 활동에 대한 긍정적 요인이 보다 크게 자리하고 있다. 우선 보스니아 내전 동안 저질러진 전범들의 사법적 처리 문제를 국제 사회의 시각과 평가 속에 완결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CTY는 지난 24년 동안 체포 기소된 총 161명의 전범 중 사망자를 제외한 151명이 재판을 받는 등 유고 지역에서 자행된 전범들의 모든 재판을 완수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보스니아 내전은 제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대량 학살과 대량 난민 문제를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ICTY의 활동과 전범 단죄는 국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 같은 전쟁 범죄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를 묻는 국제 사회의 정의를 향한 의지 표출을 보였다 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ICTY의 활동 및 역할 종료는 오랜 동안 보스니아 내 각 민족 간 화해를 가로막고 있던 암울한 과거사 청산을 마무리 지었다는 국제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ICTY에서 기소된 모든 전범들을 체포했고 그 죄를 물어 재판을 이끈 ICTY의 활동으로 인해 보스니아 내 각 민족 계파들은 공식적이고 국제 법에 따른 전범 문제 해결과 과거사 청산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보스니아 내 민족 간 화합 구축과 영구적 평화 정착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맨체스터,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그 이름

‘영국’을 떠올려 보면 런던이 먼저 생각나지만 ‘영국의 축구’를 연상하면 맨체스터가 생각난다. 그만큼 맨체스터는 ‘축구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과연 맨체스터에 사는 사람은 맨체스터를 어떻게 소개하고 생각할까? 맨체스터에서 태어나고 자란 크리스가 말하는 맨체스터를 들어보자.



맨체스터를 말할 때 축구를 빼놓고 말할 순 없지만, 축구만으로 백퍼센트 설명할 수 없는 곳이야. 맨체스터는 세계에서 위대한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이지. 맨체스터에 산다는 것은 맨체스터의 색깔이 잔뜩 묻어있는 건물, 거리, 열정 속에 산다는 거야. 맨체스터 사람은 매우 열광적이야.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발달해 있어. 그중 하나가 음악이야. 리버풀에 비를즈가 있다면 맨체스터에는 오아시스가 있어! 오아시스가 처음으로 공연했던 장소, 오아시스가 처음 악기를 샀던 곳 등 오아시스 성지가 많은 곳이야. 최근에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도 맨체스터에서 열렸어. 맨체스터가 음악의 도시이기도 하지.

맨체스터에는 셸포드 키 (Salford Quays)라는 곳이 있어. 맨체스터의 문화가 녹아있는 쇼핑, 스포츠까지 모든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야. 여기 안에 있는 임페리얼 워 박물관 (Imperial War Museum North)을 가면 ‘전쟁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하는 전시를 볼 수 있어.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전쟁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자세히 다뤄줘. 한국 전쟁 (Korean War)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보는 것을 추천해!

맨체스터는 런던과 다른 영어 악센트를 갖고 있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내가 지민이를 만났을 때 내 악센트가 이상하다고 놀리더라고^^ 영국 남부 특유의 악센트가 외국인한테는 매우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오아시스(Oasis) : 1991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결성됐으며 90년대를 대표하는 브릿팝 밴드. 2집 [(What's the Story)]는 영국에서 450만 장, 미국 400만 장이 팔렸으며 〈Wonderwall〉가 〈Don't Look Back in Anger〉가 대표곡이다.

박지민 부장 94pjimin0303@hufs.ac.kr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1955년 5월 10일,
우리학교 제2대 학장으로
박술음 박사 취임하다.



▲한국외대 제2, 6대 학장 취하(醉霞) 박술음(1959)



▲서울캠퍼스 본관 신축 부지(1956,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홍배 이사)



▲박술음 선생상(서울캠퍼스 교정)

우리학교의 중문(中門)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어연수 평가원과 국제관 건물 사이에는 ‘취하 박술음 선생상’이라는 이름으로 동상이 하나 놓여 있다. 우리학교 사람들이 기억하고 존경하는 교육자지만 재학생 중에 박술음 선생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서울캠퍼스에 그분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는지는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박술음 박사는 1955년 우리학교 교수로 초빙돼 1977년 정년퇴임할 때까지 영문법 등을 강의하면서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한 영문학자이자 우리학교의 제2대, 6대 학장이었다. 1955년 5월 10일, 우리학교 제2대 학장(1955~1960)으로 부임하며 개교 초기 우리학교 성장의 기초를 다졌다. 이후 1966년부터 약 12년 동안 제6대 학장(1966~1977)으로 재임하던 시기에는 우리학교가 당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과와 연구소를 설립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 나갔다. 또한 우리학교만의 교육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박술음 학장은 무엇보다도 우리학교 설립 직전인 1950년대 초, 사회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부존자원의 부족을 매우 고 우리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만드는 길은 해외로 웅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 뿐’임을 역설하며 당시 대학 설립을 준비하던 김홍배 이사장을 도와 우리학교의 개교를 실천에 옮겼다. 그래서 박술음 학장은 우리학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박술음 학장은 또한 당시 우리학교 설립을 위해 △ 정부의 행정적 지원△캠퍼스 건립에 필요한 학교 부지 불하(拂下)와 건축 자금 등의 재정적 지원△교육

자재 제공△외국인 교원 영입 등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대학 설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며 초창기 우리학교가 대학의 모습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했다.

1902년 서울에서 태어난 박술음 학장은 당시 외국 선교사들과 접촉이 잦았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이 세계 문화와 외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다. 연희전문학교(지금의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한 후에는 영어 교육자와 국제 정세 전문가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다.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조차 생소했을 1950년대에 우리학교의 설립과 이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이러한 경험과 직관에서 비롯된 국제 사회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이 바탕이 됐다.

박술음 학장은 사회부 장관으로서 국제 정세에 밝은 행정 엘리트의 면모를 보여줬고, 우리나라 영어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발전에 기여한 국내 최고의 영문학자이기도 했으며, 우리학교 설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육 행정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학교 사람들이 기억하는 진정한 박술음 학장의 모습은 온화하지만 끈은 성품으로 제자들에게 참다운 인간상을 가르치고, 후진들에게 글로벌 리더로서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참스승’으로서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의 숭고한 교육 철학은 후학들과 후배 교육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부존자원 :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 즉 자연·노동·자본을 총칭하는 말이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강의평가 제도, 우리학교는 몇 점?

교수가 학생을 평가하듯 학생도 교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강의 만족도 평가(이하 강의평가)다. 강의평가는 학생이 교수의 전체적인 수업과 분위기 등을 평가해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제도를 통해 교수는 수업 방식과 목표를 점검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우리학교 역시 강의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해야만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강의평가지만 학생들은 평가운영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단지 시험 성적을 확인하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강의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 강의 만족도 평가?

우리학교는 『행정규칙 4-2-28 강의평가 운영 규정』에 따라 강의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교수학습개발원의 교육선진화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강의평가는 중간평가 및 기말평가로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해당 학기 자신이 수강한 강의와 해당 교수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 수강신청 시 필요한 강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강의평가 결과는 『행정규칙 4-2-28 강의평가 운영 규정』 제12조(평가 결과의 공개)에 따라 학기 수강신청 기간 2주 전부터 수강신청 변경 기간까지 공개된다. 『행정규칙 4-2-28 강의평가 운영 규정』 제8조(평가 방법)에 따라 강의평가 미응답자에게 성적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모든 답변은 『행정규칙 4-2-28 강의평가 운영 규정』 제14조(비밀 유지)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된다. 답변 순서 역시 무작위로 배치되기 때문에 교수는 어떤 학생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 학생들의 평가, 미치는 영향은?

위의 항목별로 합산된 평가 결과는 △대학원 △대학 △전공으로 보내진다. 여기서 2학기 이상 총점 평균 3.9 이하의 점수를 받은 비전임교원(시간강사 포함)은 따로 명단을 작성해 각 단과대로 발송한다. 해당 학과에선 명단에 적힌 비전임교원들을 다음 학기부터 임용할 수 없다. 한층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난 지금, 2학기 이상 낮은 점수를 맞은 비전임 교원들의 수는 대략 10명 미만이다. 반면 전임교원 즉, 교수들의 경우 △연구 △교육 △봉사로 이뤄진 교수업적평가 중 교육 부문에 강의평가 평가점수가 일부 포함된다. 강의평가 결과는 성과금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임용 여부와는 무관하다. 전임교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평균 점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학생이 답변했는지는 알 수 없다.

◆ 강의평가 다른 학교는?

고려대학교 인문대학(안암 캠퍼스)의 경우 인문대학 강의평가는 기말평가 1번으로 시행되며 △공통문화 10개 △선택 외국어 2개 △심학 2개 △핵심 2개로 이뤄져 있다. 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10일 전부터 수강신청이 끝날 때까지 공개된다. 강의평가 결과 점수가 상위권에 분포된 교수들에게 이에 대한 우수상을 수여하고 하위 5%에 대해선 경고와 제재를 부과한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마다 강의평가에 관한 내규가 다르다. 경희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3장 교수(명예) 제9조(자격) 2항에 의해 명예교수의 재발령을 위해선 최종 2개 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규정 제4장 겸임교수 제14조(자격) 2항에 따라 겸임교수의 재발령을 위해선 학기를 기준으로 직전학기를 제외한 최근 2개 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처럼 자세한 강의평가의 결과는 교원들의 임용에 영향을 미친다. 경희대학교는 현재 학기 말에 한번 강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15개~16개의 항목들로 구성돼 있다. 평가 결과 공개 시기는 각 단과대학 또는 학부마다 다르며 평가 결과는 교수의 업적 평가로도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중간·기말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4가지 유형,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평가 결과는 수강신청 한 달 전부터 신청 마감 날까지 공개되며 이

<별지 1> 중간 강의평가 문항

20 년도 제 학기 중간강의평가

※ 중간 강의평가는 학기를 마치고 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수님이 학생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강의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다 좋은 강의를 위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평가는 익명이 보장되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I. 학생 본인에 대한 의견

1. 귀하는 본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II. 담당 교수님에 대한 의견

1. 교수님의 강의준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교수님의 강의방법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교수님의 강의태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교수님이 내주시는 과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지 2> 기말 강의평가 문항

(⑤매우 그렇다 ④그렇다 ③보통이다 ②그렇지 않다 ①매우 그렇지 않다)

번호	대항목	소항목	문 항	평가척도	
1	공통 영역	평가	나는 이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2			나는 이 강의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였다.(예습·복습)	⑤ ④ ③ ② ①	
3			강의계획서에 충실히 작성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4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교육내용이 교과목 및 강의목표에 부합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5			강의내용이 전공지식(또는 일반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6			과목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7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질문을 적절히 수용하고 성실히 응답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8			평가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고 평가가 공정한 이루어졌다.	⑤ ④ ③ ② ①	
9			평가 방법의 강의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10			과내, 평가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자주)과 조언이 이루어졌다.	⑤ ④ ③ ② ①	
11	선택 영역	강의	학기 내 강의기간과 강의시간은 준수(조기종강 미실시)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12			담당교수는 출결관리를 철저하게 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13			담당교수는 요청 시, 본장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14			학업적으로 이 강의에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15			강의내용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16			담당교수는 이 강의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진행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17			태도로 용이, 개방, 부드러운 분위기를 강의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18			강의내용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19			담당교수는 이 강의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진행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20			태도로 용이, 개방, 부드러운 분위기를 강의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21	대학별 평가	강의/심화	실질/심화 가져오는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2			실질/심화 가져오는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3			실질/심화 가져오는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4			실질/심화 가져오는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5			실질/심화 가져오는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6			실질/심화 가져오는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7			실질/심화 가져오는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8			실질/심화 가져오는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9			실질/심화 가져오는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30			실질/심화 가져오는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31	대학별 평가	추가 문항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32			강의가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높이고 사색적활동력을 증진시켰다.	⑤ ④ ③ ② ①	
33			강의의 방법과 소크라테스식 방법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34			(실용과제) 담당교수는 일상생활 중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적절하게 부여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35			(실용과제) 담당교수의 법률, 철학, 입문강의 등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36			(실용과제) 나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담당교수의 자문이나 비평을 적절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37			(실용과제) 나의 수업은 나의 업무능력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⑤ ④ ③ ② ①	
38			담당교수는 수업운영의 대부분(90% 이상)을 영어(한국어)로 강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영어(한국어)로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40			나는 영어(한국어)로 토론 발표를 할 수 있다.	⑤ ④ ③ ② ①	
41	대학별 평가	추가 문항	강의 내용은 영어(한국어)로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42			강의에서 주요 개념, 학리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⑤ ④ ③ ② ①	
43			학업능력 토론과 발표가 영어(한국어)로 이루어졌다.	⑤ ④ ③ ② ①	
44			과제, 리포트, 시험 등이 모두 영어(한국어)로 진행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45			강의는 영어(한국어)로 능숙한 전공교양) 지식 활용에 도움이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46			이 강의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30자 이내)		
47			이 강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00자 이내)		
48	교수 자율 개명항		1.		
49			2.		
50			3.		

후엔 비공개로 전환된다. 전임교원들에게 평가결과가 업적평가 교육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평가점수가 총점 3.5 이하인 전임교원에 한해 시말서를 작성해야한다. 학기 강의평가 총점이 3회 이상 3.5 이하로 떨어질 시 비전임교원은 추후 임용이 제한된다.

◆ 강의평가의 한계

『행정규칙 4-2-28 강의평가 운영 규정』 제8조(평가 방법)에 따라 매 학기 시험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선 학생들은 반드시 강의평가를 작성해야한다.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평가는 진정성을 저해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쉽다. 강의 평가 점수가 수강신청과 같은 특정 기간에만 공개되는 것도 학교 강의평가의 한계중 하나다. 특정 교수나 해당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이러한 이유로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을 이용한다. 에타는 학교 또는 교수들과 무관하기 때문에 특정 강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타의 강의평가 항목은 △과제 △조모임 △학점 비율 △출결 △시험 횟수로 구성돼있다. 학교 강의평가보다 비교적 실용적인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학점을 잘 주거나 과제가 없는 등 만족도가 높은 강의들의 평가란엔 '학점느님' 또는 '5개 만점인 별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강의 후기 또한 작성 가능하다.

학교는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진정성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수와 강의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다양한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학교의 주관 아래 이뤄지는 강의평가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학교 강의평가는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기간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교수학습개발원 교육선진화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평가는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며,

답변 결과 역시 무작위로 등재되기 때문에 교
수는 누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강의평과 결과는 전임교원들의 업적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비전임교원들에게엔

차후 임용에 영향을 미친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그 목적의 변질과 해결책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국민 소통 정책이다. 이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백악관의 시민청원 홈페이지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8월 19일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도입 9개월 차를 맞았다.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취지 하에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는 벌써 18만 2000개가 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는 하루 평균 7백 건에 육박하는 수치로 국민청원제도가 뜨거운 반응을 낳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극단적인 여론형성과 물타기로 인한 제도의 오용 결과다.

◆국민청원 제도란?

국민청원제도는 국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청원 진행 방식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게시되면 국민들이 이를 보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해당 청원을 추천할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대통령 수석 비서관△특별보좌관 등)는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한다. 청원의 내용은 △정치개혁△외교·통일·국방△일자리△미래△성장동력△농·산·어촌△보건·복지△육아·교육△안전·환경△저출산·고령화대책△행정△반려동물△교통·건축·국토△경제민주화△인권·성평등△문화·예술·체육·언론△기타 등 17가지로 범주화 돼있다. 국민청원제도 운영 원칙에 의하면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은 존중되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위반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고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비속어△폭력적 내용△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다. 다른 규정으로 한 이용자가 동일한 청원을 중복 게시할 수 없으며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다. 이는 최초 청원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해 청원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까지 추천건수가 20만 건을 돌파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은 청원은 25건이다. 답변이 완료된 청원은 △주취감형(술 마시면 형벌 감형) 폐지△권역의상센터 지원 강화△초·중·고 학교 폐미니즘교육 의무화△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 건의△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등이 있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도 8건으로 △꽃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중국에 대한 항의△삼성중금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등이 있다. 이 중 주목을 받는 사안들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국민청원 제도의 파급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청원 제도의 순기능

국민청원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본 제도가 갖는 의미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에서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있다. 지난해 9월 청원답변 1호로 올라온 사안은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였다. 이 청원은 총 40여만 명의 추천을 받은 사안으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조국 민정수석△김수현 사회수석이 영상을 통해 답변했다. 정부관계자들은 해당 사안의 개념 설명과 저변에 깔린 구조

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것으로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종류의 보호처분을 활성화시켜 학생들의 제재로 된 사회 복귀를 이루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말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청원답변 2호로 올라온 ‘낙태죄 폐지’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볼게 됐다”며 “청원에 의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 담당자가 세 차례에 걸쳐서 쟁점을 검토하고 토론을 한 결과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민정수석은 “정부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이다”며 “여성가족부 산하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당사자를 지원하는 전문 상담 또한 실시 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국민청원 제도의 역기능

국민청원 제도의 파급력이 확대되면서 청와대가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청원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다. 61만 명이라는 최다인원 참여 청원임에도 청원의 내용을 설명하는 개요 란에는 타당한 논리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적혀있다. 해당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법상으로 조두순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 하며 분노가 크다고 해서 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 전담 보호관찰과 지정을 통해 조두순 출소 이후에 정부가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어낸 청원은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비상연맹의 엄중 처벌에 대한 청원’이다. 해당 청원에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은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스포츠 비리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여차탐 추월 사태 또한 진상 조사를 벌여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 문제도 점검 하겠다”고 답했다. 위에 언급된 두 청원 모두 특정인을 겨냥한 청원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대한빙상연맹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동계올림픽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을 박탈하자는 청원△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번역자 박지훈의 외국된 번역을 사유로 번역자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냉면 식당인 ‘옥류관’을 우리나라에도 개설해 달라는 청원△북한 매주인 ‘대동강 맥주’를 다시 수입해달라는 청원 등 사사로운 청원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일부 청원에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

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답변을 내놔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향한 전문가의 일침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에 대해 우리학교 이재목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제도는 대의 민주주의가 가진 여러 문제들에 대한(직접민주주의적) 대안 또는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자칫 민주주의가 지나친 즉흥주의, 다수결 정치, 중우정치 그리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며 “특히, 청원에 필요한 숫자만 채우면 청원 요건이 설립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속의·공론화 과정보다 수 대결로 비출 수 있는 문제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청원에 기반 한 다수결의 횡포가 소수에 대한 억압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 한다”며 “모든 문제를 청와대의 국민청원으로 해결한다거나 오직 거기에만 기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권자나 시민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물론 이것이 결국 우리의 기존 정치시스템(소위 적폐로 불리는)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그리고 청와대가 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 못 된 생각 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감기 등 작은 병을 갖고도 모두 대학병원 또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간다면 하급 의료기관이나 동네병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들며 “정치나 사회 현안도 정치나 행정시스템의 각 급 또는 수준에 맞게 해결 기구 또는 제도를 갖춰야 우리 정치사회 시스템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국민청원제도의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참여 방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주민청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청원이 대표자 중심 대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선출직 정치 엘리트들과 행정관료들의 자기성찰과 반성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지나치게 중앙 중심적 논리와 다수결주의 논리에 입각해 있는 국민청원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 또한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을 위한 시민 스스로의 고민도 해결책이 된다”며 “이 고민 속에는 즉흥적인 마녀사냥식 재판을 일삼는 국민청원에서 벗어나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한 사실관계 여부 확인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사안 판단이 포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주연 기자 95m52535@hufs.ac.kr

패션을
포착하다

흡선티플

봄과 여름 사이, 따뜻한 봄이 가득한 우리학교는 활기를 띤다. 기자는 늦은 오후 한가로운 캠퍼스를 거닐다 잔디광장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남학생들을 발견했다. 남색 셔츠에 슬랙스를 입어 깔끔한 느낌을 준 홍민재(중국·중외통 16)씨, 흰 면바지에 오버핏 티셔츠와 긴팔 이너웨어를 매치해 힙합 감성을 드러낸 주재현(경영·경영 16)씨, 카키색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진한 베이지색 면바지를 캐주얼한 연출을 한 박준웅(아시아·몽골어 16)씨가 그 주인공이었다. 기자는 서로 다른 느낌을 가졌지만 은근하게 조화로운 세 학우를 1019호 흡선티플로 선정했다.

기자(이하 기) : 안녕하세요! 세 분 다 다른 스타일을 가지셨는데 머리는 다 짧은 공통점을 가지셨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홍민재(이하 홍), 주재현(이하 주), 박준웅(이하 박) : 아(웃음) 저희 모두 우리학교 학군단 소속 58기 후보생이에요!

기 : 아, 학군단이셨구나(기자는 흠칫 놀랐지만 인터뷰를 이어갔다). 멋있네요! 대표로 홍민재씨가 오늘 굉장히 깔끔한 연출을 하신 거 같아 돋보여요. 평소에도 깔끔한 옷을 자주 입으시나요?

홍 : 아 사실 오늘 예정시간보다 10분 늦게 일어나서 혈레벌떡 입은 거긴 한데..얇은 소재의 차이나



셔츠와 그에 맞는 슬랙스로 단정하고 심플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그리고 시계로 살짝 포인트를 주고 특이하게 생긴 신발로 마무리(정구)

즐겁게 인터뷰를 하는 도중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며 다들 “충성”하며 누군가를 향해 경례했다. 학군단 57기 후보생이었다. 무심한 듯 걷어 올린 셔츠 소매와 메달 시계, 새하얀 에어 포스는 기자의 시선을 끌기 충분했다. 그 또한 흡선티플이었다.

기 : 안녕하세요!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셔츠를 이용한 코디는 정말 완벽한 코디인 거 같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맞는 코디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한다면?

57기 후보생 :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보니까 소매를 걷을 수 있는 셔츠도 좋고, 가볍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코치 자켓도 좋은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헌팅 자켓도 좋아하는데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워서.. 학생 여러분 모두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공유와 협력의 시대, 소셜미디어의 새로운 가치와 현명한 활용 방법

우리는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속에서 초 단위로 소통하며 새로운 관계 속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런데 두 달 전, 페이스북 협력업체 캠브리지애널리티카가 2016년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트럼프 후보관련 기업에 대량으로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곤혹을 겪는 듯 했으나 이번

달 조사된 미국 내 페이스북 이용자 수엔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유와 협력으로 표현되는 소셜미디어, 이대로 계속 사용해도 될까? 소셜미디어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최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에게 물었다.

최영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Q1. 과거의 미디어 형태는 어떤 특성을 보였나?

과거 대부분의 정보는 소수 전문가들에 의해 공공·유통됐고 대중들은 전달받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했다. 교통과 통신에 기술적 제한이 있었고 사회구조적으로 일반 대중들의 커뮤니케이션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때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신문△TV△라디오 등으로 대표된다. 이런 미디어를 ‘매스미디어’라고 칭한다. 매스미디어는 소수의 집단이나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환경 때문에 독자 혹은 시청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을 받는 구조였다. 지금처럼 대중이 콘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런 특성에 따라 매스미디어의 핵심가치는 △경쟁△독점△중앙집중△수직적구조 등이었다. 낡은 패러다임 같지만 과거 산업사회에서 일방적 매스미디어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앞서 언급한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에 효과적인 매커니즘이었다.

Q2. 매스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주요 미디어의 흐름이 변화한 계기는 무엇인가?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대중들의 미디어 이용 동기이다. 미디어 이용 동기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환경의 변화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과거 매스미디어의 대표 격인 신문과 TV를 예시로 들어보자. 과거에 신문은 주로 정보 전달을 위해, TV는 오락을 위해 이용자들이 접근했다. 시간이 흐르고 미디어를 일방적으로 소비했던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는 싸이월드나 블로그의 확산에 영향을 받았다. 이는 수동적 존재였던 이용자들이 이전과 다른 이용 동기를 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대중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보고, 듣고, 소비하는 대상에서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했다. 물론 매스미디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독점△중앙 집중적△수직적이었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현재 사람들 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 매스미디어에서 정보와 오락이 주요 동기였다면 이제 대중들은 정보와 오락은 물론 △정체성표현△자아실현△상호작용 등 다양한 이용 동기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게 됐다.

Q3. 소셜미디어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가장 큰 영향은 △트위터△페이스북△위키피디아△소셜북마킹 등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타인과의 연결망 속에서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소셜미디어를 확산시켰다. 과거의 단순한 콘텐츠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글을 쓰고 사진을 게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참여한다. 소셜미디어라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경쟁·독점으로 대표되는 과거 미디어의 내재된 가치를 공유·협력이

라는 새로운 가치 체계로 변모시켰다. 이제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고 여론이 형성되듯, 이제 자본과 권력을 가진 특정 집단들만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혹은 약자들까지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Q4. 소셜미디어의 공유와 협력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공유와 협력의 사례는 개인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사소한 공유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공유까지 그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다. 공유와 협력의 대표적 예시로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일컬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가 있다. 당시 JTBC라는 매스미디어가 국정농단 사실을 밝혔고, 소셜미디어에서 내정간섭에 관한 자료가 끊임없이 수집돼 퍼졌다. 이는 수많은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사건에 주목하고 개입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됐다. 수많은 1인 미디어 이용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시위를 약속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역 별로 행진 계획을 약속하고 시위행진로를 공유하며 100만 시위라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소셜미디어 속 능동적 이용자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변혁을 이룬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공유와 협력의 핵심은 앞서 었본 촛불시위처럼 과거 매스미디어의 특성상 생각·의견을 전달하지 못했던 잠재그룹이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매스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이 구체적 행동을 취해 정보를 알리고자 할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따라서 대부분 정보가 수면 아래에서 잠재적 형태로만 남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소유할 수 있게 되자 정보를 전달하고 그 속에서 행위를 주도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됐다. 실존 그룹 형성에 있어 △공유△협력△공감 등 가치가 밑바탕에 자리 잡은 것이다.

Q5. 소셜미디어 속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소셜미디어로 수많은 정보를 쉽게 받지만, 그만큼 자신이 쉽게 파악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한다. 활동은 기록으로 보관돼 하나의 데이터 조각이 된다. 커뮤니케이션 기록들은 우리가 만든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 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의 예측 가능성과 분석적 기능은 우리에게 정선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공적 이익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개인 간의 의사소통 결과물이 기업을 포함한 조직 혹은 국가에 의해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 정보가 광고나 마케팅의 목적,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수집되며 유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제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환경으로 변화는 좋으나, 개인적인 소통 결과를 기업이 활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삶의 패턴이 파악된다. 페이스북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단순히 남긴 ‘좋아요’ 클릭 하나로 기업은 △이용자의 성향△취미△직

대중들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수 혹은 약자들까지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의 변혁을 이룬다.

현재 소셜미디어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소수가 독점하기 쉽다는 난점을 마주했다.

공유와 협력의 시각에서 소셜미디어를 새롭게 바라볼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업 등 어쩌면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우리를 더 잘 알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빅데이터의 힘이다. 이를 학술적 용어로 언노운 언노운즈(Unknown Unknowns),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타인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다른 집단에게 자신의 성향을 파악당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자들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지만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다음 같은 기업에게 있다. 다양한 정보가 생산돼도 기업은 선별·가공한 정보만을 공유한다. 우리의 통제권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인지도 못하고 있다. 아직 빅데이터의 파급력은 비가시적이지만, 미래엔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빅데이터와 관련해 소셜미디어는 통제권이 전혀 없었던 과거 권력적 매스미디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소셜미디어 시대의 함정이라 할 수 있다.

Q6. 소셜미디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먼저 이용자들은 민주 시민의 덕목을 키워 공동체나 공공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창조적·생산적인 정보 생산 양식을 고민하고 산업적 성과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해야한다. 공동체 또는 공공 조직은 정보의 사회적 소유권을 일정 부분 확장해야한다. 지식 산업과 관련해 △고용주△은행△정부기관 등의 공공조직은 사적 이득만이 아니라 공적 복지에도 기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로 간의 협력, 이타주의 등 타인과 관련한 덕목을 기본으로 하는 광범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공유를 기반으로 한 협동 정보 생산은 이런 가치들이 내재돼 퍼져야한다. 이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는 협력, 공유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해 집단행동을 하며 결과를 공정하게 분배해야한다. 이 같은 과정이 이뤄진다면 이타주의가 확산되고 서로를 신뢰해 사회자본이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과 행복을 찾는 태도가 형성될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참여를 통해 생산된 정보를 소수만이 독점하기 쉽다는 난점을 마주했다. 이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응하려는 모두의 각성이 요구된다. 소셜미디어는 삶의 모든 영역에 녹아들어있고 개인이 미디어를 이용하더라도 사회적·집합적 결과를 낳는다. 공유와 협력의 시각에서 소셜미디어를 새롭게 바라볼 시점이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두려워해도 돼

한 학기가 지나 다시 뒷담하는 기사를 쓰니 감회가 새롭다. 연신 ‘YES’를 외치던 내게 ‘NO’를 연습하게 만든 계기를 담아냈었는데, 이번엔 두려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23살 12월, 군대에서 전역하고 할 줄 아는 것을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가 갖고 있을만한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다. 특히 영어 실력의 경우 우리학교 이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였다. 뭐라도 열심히 해보아야 생각을 해도 두려움이 앞섰다. 결국 못한다는 두려움이 앞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개강 후 얼마 되지 않아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고 4개월 동안 목발, 보조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닥치지도 않은 상황을 더욱 두려워했다. 4개월이 지나 보조기를 풀었을 때 앙상해진 왼쪽다리와 걷는 것의 어색함은 나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이때 든 생각은 ‘뭐라도 해보자’였는데, 그것이 외대학보였다. 누군가를 컨택해 기사를 쓰는 것도, 이목을 끌 수 있는 제안을 써오는 것도 두려웠다. 또한 나는 성격이 급해 실수가 잦았다. 그래서 꼼꼼히 보려 노력했지만 이해 못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번학기의 경우 거의 모든 기사를 7차까지 수정받기도 했고, 20매의 원고지를 마무리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은 나였다. 그래서 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7차까지 수정받은 내 기사를 읽어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8개의 신문을 내며 내가 쓴 기사를 공부한 것이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기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을 느낀다. 또한 이번 9번째 신문을 내며 △기획△사회문화△학술△인물 모든 면을 다 써보게 됐다. 느리지만 모든 것을 경험했다. 시작이란 단어는 나를 두렵게 하던 존재이고, 앞으로도 날 두렵게 할 존재다. 하지만 두려워도 시작을 해보려한다. 상상했던 왼쪽 다리가 많이 회복됐다. 비오는 날은 무릎이 쭈시고, 가끔 자다가 아파서 깰 때도 있지만 의사선생님이 후유증이 남을거라고 했을 때 만큼의 느낌은 아니다. 지나봐야 알게 되고, 직접 부딪혀봐야 감내할 수 있을지 못할지 알 수 있다.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면 내가 생각한 두려움은 평생 남는다. 새는 평생 두려워하며 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두려워도 비행하는 이유는 높은 상공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위해서가 아닐까?



정동민 기자

도 넘은 플미 티켓

‘x요일 x시 공연 xx구역 xxx번 양도합니다. DM으로 가격 제시해주세요. 역제시x’ ‘xx팬콘 양도 합니다. 원가+20에 쿨거래 합니다’ 인기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팅이 끝나고 나면 트위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이는 모두 프리미엄 티켓(이하 플미 티켓)을 판매하는 내용의 문구들이다. 플미 티켓이란 티켓 원가에 수교비 명목의 프리미엄 가격을 덧붙인 후 판매하는 티켓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인기 아이돌 워너원의 서울 공연 플미 티켓 가격은 원가의 6배, 더 나아가 300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팬들의 비난은 물론 플미 티켓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바 있다. 지난 3일에 진행됐던 사이니 팬 미팅 티켓팅 또한 많은 플미 티켓들이 어김없이 발생했다. 예매처였던 예스24는 이러한 플미 티켓들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가 절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이 아닌 신용카드 결제만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또한 ‘현장 입장 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게 할 예정이다’ 고도 전했지만 어김없이 플미 티켓을 파는 사람들은 나타났다. 그들은 오히려 ‘공연 입장 시 본인 인증 통과할 자신 있는 분들만 연락주세요’라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며 많은 팬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플미 티켓을 사는 척 판매자에게 다가가 좌석 정보 및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팬들은 예매처에 직접 신고했다. 결국 많은 팬들의 신고로 예스24 측은 취소표들을 대상으로 2차 티켓팅을 진행했지만, 예스24 측에서 사전에 취한 공지와 조치는 결국 아

무 소용이 없었음을 증명한 셈이었다. 이러한 플미 티켓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현행법에 의하면 현장 거래의 경우 압표를 팔아 폭리를 취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압표의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온라인상의 플미 티켓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예매처 역시 ‘개인 간의 직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있다’며 ‘불법거래 적발 시에는 예매 취소 처리와 함께 법적인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 수준의 공지만 할 뿐 실질적으로 플미 티켓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플미 티켓들의 문제는 단순히 가격을 덧붙여 판매한다는 점만이 아니다. 콘서트에 가서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마음’과 ‘간절함’을 악용하는 플미 티켓은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플미 티켓 판매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마련이 시급하다. 안전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도덕성을 보호하고 구성원들을 웃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플미 티켓: 원가에 프리미엄 가격을 덧붙인 후 판매하는 티켓.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꿈을 바라보는 관점

한 여인이 기괴한 꿈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과거에 여인은 그녀의 언니가 낳은 첫 아들을 아끼고 예뻐했으나 아이는 얼마 못가 죽었다. 그녀는 몹시 슬퍼했다. 첫째만큼은 아니지만 이후 그녀는 언니의 둘째 아들을 몹시 예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꿈을 꿔다. 꿈속에서 여인은 장례식장에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작은 관 하나를 발견한다. 그 속에 언니의 둘째 아이가 누워있었다. 여인은 이를 보고 놀라 잠에서 깬다. 심란해진 그녀는 정신과에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다. 조카의 죽음을 바란다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이다. 여인은 의사에게 자신이 꾸는 꿈을 상세히 얘기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일상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의사는 이를 듣고 여인에게 “꿈은 자신의 소망을 반영하는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즉, 그녀는 둘째 조카의 죽음을 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과거 여인은 자신의 언니와 동거했을 때 언니를 방문했던 한 작가와 사랑에 빠졌다. 둘은 결혼까지 약속했었지만 어떤 일로 인해 무산됐고 결국 헤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가를 잊지 못했다. 며칠 뒤 언니의 첫째 아들이 죽었다. 많은 이들이 조문하러 자매의 집에 들렀고 여인과 헤어졌던 작가 역시 조문객으로 자매의 집에 방문했다. 이별 후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작가를 만날 수 있었다. 의사는 이 점을 지적하며 꿈속에서 여인이 작가를 다시 만

나기 위해 장례식이라는 상황을 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꿈속에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사랑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왜곡돼 표현된 것이라 말했다. 19~20세기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저서 《꿈의 해석》에서 자신이 의사 생활을 하던 일화를 밝히며 꿈은 자신이 이루고픈 소망이나 욕망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즉, 꿈은 소망충족의 욕구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욕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욕구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관지어 다른 형상으로 표현되며 때에 따라 왜곡돼 나타난다. 따라서 꿈을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의 심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정신 분석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해몽이 완벽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객관화를 통해 모든 꿈이 소망을 반영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정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꿈과의 연계를 통한 그의 연구는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꿈속 관계로 풀어낸 프로이트의 연구 《꿈의 해석》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에게 꿈에 관한 중요한 지침서가 됐다.

나산 기자 96mountain@hufs.ac.kr

총학과 함께 더 푸르러질 우리학교

이수빈(아시아·태국어 17)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외대학보 1018호는 제52대 총학생회 선거뿐만 아니라 대학가의 사이버성범죄, 청년사회의 우울증 등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로 구성됐다. 먼저 4면에서 다뤄진 ‘3년 만에 성사된 제52대 총학생회 선거’ 기사는 글의 구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느껴졌다. 기사는 입후보 등록부터 총학생회장 당선까지 총회 선거의 과정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총학생회 선거 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한 점과 기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한계들을 언급해 독자들이 총학생회 체제에 대해 더 큰 기대감을 가지게 했던 점이 칭찬할 만하다. 5면 ‘날로 기승하는 사이버성범죄’ 기사는 사이버성범죄의 현황과 처벌방안을 다뤘다. 사이버성범죄의 정의 설명을 통해 기사를 시작했다. 이후 제시된 사이버성범죄의 구체적인 예시들은 사이버성범죄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 점을 통해 실제 가까운 곳에서 사이버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 경각심을 가지게 해줬다. 하지만 언급된 사건들에 대해 어떤 처벌이 이뤄졌는지 다루지 않아 사

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그러나 뒤에서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 지 언급해줘 아쉬웠던 점을 잘 감싸준 것 같다. 6면 ‘청년우울증 환자 80만 시대’무엇이 그들을 괴롭히는가 기사에서는 청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원인과 우리나라의 우울증 극복방안의 한계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서 올바른 대처방안을 제시해 완전한 구성의 기사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학우들이 우울증에 마주했을 때 교내에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학교에도 3년 만에 ‘푸름’이라는 총학생회가 생겼다. 총학이 우리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잘못된 일은 당당하게 바로잡아 발전하는 우리학교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또한 우리학교의 발전과 더불어 외대학보의 변명을 바라는 바이다.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김윤주(국제지역·아프리카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호의 4면에서는 학교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총학생회(이하 총학)선거를 다루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총학당선이 어떻게 이뤄졌으며 총학이 전의 체제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총학으로서 푸름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더불어 총학이 내세웠던 공약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총학의 공약을 다시 살펴볼 수 있어 좋았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학생도 학생 사회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5면은 미투 운동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에 나타나고 있는 신종 범죄인 사이버성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사이버성범죄 사건들과 그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와 학교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종교 활동에 관련해서는 7면에 다루면서 사이버종교가 무엇인지, 대학가에 침투한 이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우울증, 특히 청년들의 우울증과 관련해 8면에서 다루고 있

다. 이 기사에서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해 청년들의 우울증을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방안과 사회적 여건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이나 SNS에 올라오는 글들이 생각났다. △학교생활△가정환경△취업준비등 다양한 요인으로 우울하다는 글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많은 생각이 든다.

이번 호는 우리학교 및 학생들과 관련한 기사가 많아 서너와 달았던 것 같다. 단순히 현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사들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기사 외에도 선플 풀이나 열린 공간에서 다른 캠퍼스들이 학보 읽는 맛을 더해줬다.

벚꽃이 지고, 중간고사가 끝나면서 푸른 새싹들이 자라는 5월이 다가왔다. 저마다의 일복달룩한 빛깔을 뽐내는 꽃같이 다양하고 풍부한 기사가 여러분들을 제공해 줄 외대학보를 기대해 본다.



국 · 부장 고정칼럼

그들의 배고픈 외침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 식, 주 중 ‘식’을 중단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려는 ‘단식 농성’은 단순히 생명 유지 수단 중단에 대한 결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욕구인 식욕을 이성을 통해 억제시켜야하는 행위다. 에이브러햄 매슬로(Abraham H. Maslow)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가장 하위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어야 가장 상위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단식농성은 매슬로의 이론을 뒤집고 가장 상위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가장 원초적인 생리적 욕구인 식욕을 넘어서서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내에도 단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에는 동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단식농성이 있었다. 동국대 단식농성은 학교 쪽이 정년퇴직한 청소년노동자를 새로 충원하지 않고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쟁점이 ‘직접고용’으로 바뀌면서 오종의 서울일반

노조 동국대 분회장과 김형수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위원장은 약 9일간 단식을 진행했다. 결국 학교 쪽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노동자들의 애환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직접고용 등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 단식농성이 구성원에게 좋은 결과를 준 것이다. 서울대의 단식농성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대 H교수의 권력형 성폭행 발언에 대해 ‘H교수 파면’을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식농성은 대부분 권력에 의한 하위 권력층의 불합리한 상황을 알리거나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다. 물론, 올바른 것을 지향한다는 전제하에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작은 외침은 비폭력적 항의의 중개인에게 가장 고된 방식이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사람들에게 권력층은 귀를 기울여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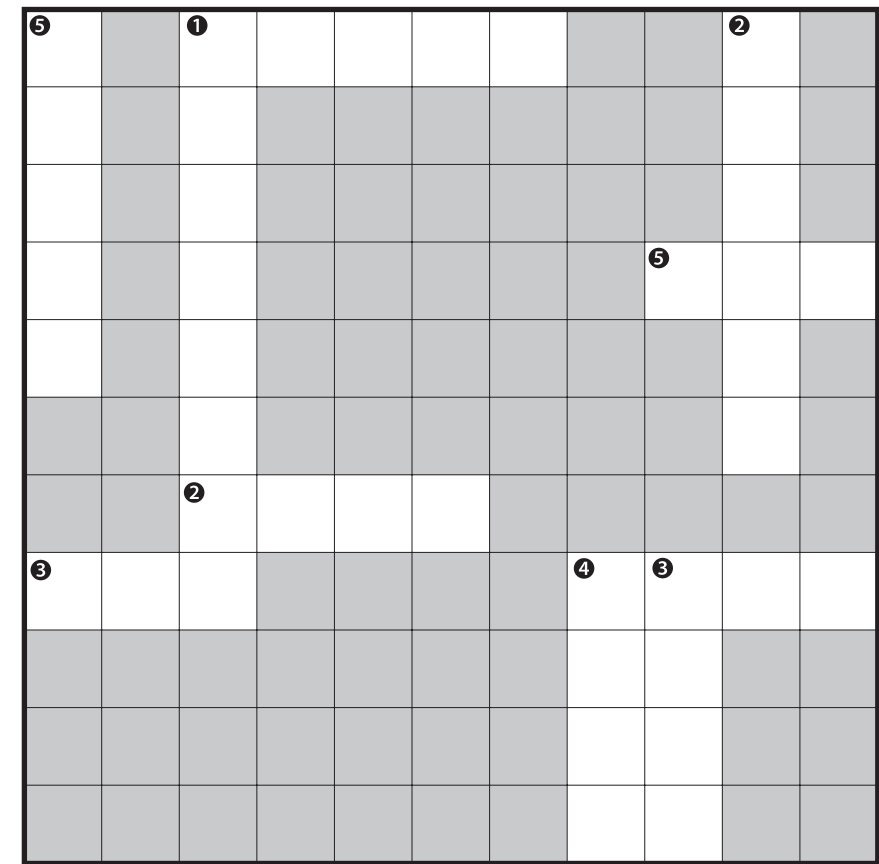
이하정 부장 94haj@hufs.ac.kr

만평



기사제보 편집장 박주원 010-4549-3209 94swj04142@hufs.ac.kr

십자말풀이



- 가로**
1. 대학 재정지원사업 CK ○○○○사업 (5면 참조)
 2. 시험이 끝난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어김없이 거치는 ○○○○과정 (7면 참조)
 3.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 (12면 참조)
 4. 백악관의 '위 더 피플'을 벤치마킹한 청와대 ○○○○ (8면 참조)
 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선언을 했다. (1면, 12면 참조)

- 세로**
1. 대학 재정지원사업 core○○○○○○○○사업 (5면 참조)
 2. 우리학교 제 2회 ○○○○○○ 총회 개최 (2면 참조)
 3. 4.19 학생 ○○○○ 58주년 기념식 (2면 참조)
 4. 우리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1면, 4면 참조)
 5. 공유와 협력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는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9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자번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전전한 공론장으로서의 미디어

지난달 ‘드루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론 조작 및 왜곡 문제가 공론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해 댓글조작을 진행한 사건이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이버 뉴스 댓글조작’ 관련 건이 게시되면서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드루킹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댓글을 수천 건 이상 작성·추진하며 기사의 화제성을 높였고 이로 인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 시장 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포털 사이트다. 2004년, 제공받은 언론사 기사에 네이버가 댓글 기능을 도입하면서 여론을 표출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됐다. 표현의 자유라는 취지하에 시작됐지만 댓글 기능은 미디어 산업의 독점화 및 광고에 따른 이익 문제와 결부되면서 많은 폐해 또한 낳았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공 뉴스를 포털 서비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링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네이버라는 기업에게 기사 편집 및 배치에 관여할 여지를 제공했고 자체적인 광고수익으로 이익창출을 가능케 했다. 최대한의 이익이 창출되려면 기사의 화제성이 높아야했고 이 과정에서 댓글조작 및 자의적인 기사 편집·배치 문제가 발생했다. △댓글수△추천수△조회수 등이 기사 화제성의 지표가 되면서 이익을 위해 개인 혹은 단체가 댓글을 조작하고 포털 사이트가 기사를 전면에 노출시키며 여론이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 드루킹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행한 과정이었다.

지난달 23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불법 대선연론조작사건에 있어 공동 특검법 발의에 합의했다. 네이버 또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문제의 개선책으로 1인당 하루 댓글수 줄이기, 연속 댓글 작성 시간 제한 등을 내놓았다. 매크로 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일각에선 인링크 제도의 역기능을 예로 들며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이 아웃링크 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정책과 제도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최선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선책을 따라야 한다. 특정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다양한 개인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론장을 지금 우리 사회는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박주원 편집장 94swj04142@hufs.ac.kr

슬픔과 분노 없이 사는 삶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12일,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위마드’에 유포한 여성 모델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가해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4일 홍익대학교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지 8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불법촬영 범죄에 미온적이던 수사당국의 기존 대응 방식과 달리 이번 수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됐다. 인권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는 “경찰이 사건 발생 수일 만에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는 등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하는 유능함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살을 염려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세심함 또한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승희 한사성 대표는 “그동안 수사당국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면 피해자의 구속 수사 요청이나 가해자의 휴대폰, 컴퓨터 등 모든 저장매체를 압 수해 원본 피해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거절해왔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에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몰래카메라 범죄, 이하 몰카)는 총 5249건에 달했다. 이 중 4968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94.6%에 달했다. 하지만 이 범죄로 기소된 1716건 중 구속 사건은 154건에 불과했고, 벌금형을 구하는 구약식 사건은 81건이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1만6201명 중 남성 가해자는 1만5662명(98%)에 이른다. 여성 가해자는 539명(2%)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현재까지 33만 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자는 “성범죄의 92%가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다”며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별을 기반으로 다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회에서 과연 남성이라 해서 안전한지”라고 물음을 던지며 “성폭력도 폭력입니다. 그것도, 권력에 의한 폭력입니다”고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우리는 젠더 권력에서 비롯된 폭력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범죄의 유무로 나누는 대상이지 성별로 구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나이가 손경이 성교육 강사는 “젠더 권력 문제는 단 여성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약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젠더 권력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지민 부장 94pjmin0303@hufs.ac.kr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박주원 010-4549-3209 94swj04142@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채영길
편집장 박주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press.net

통일의 첫걸음, 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조로 지난달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열린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우리나라 땅을 남북분단이후 처음 밟은 역사적인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합의를 선언했다. 두 정상은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적대 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했다. 외신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종전과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두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전형(사범·한교 07)씨는 전 세계가 주목한 남북정상회담 현장에 참석했다. 그가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계기와 2000명이 넘는 내·외신 기자와 함께하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알아보자.

Q1.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2006년 고등학교 재학 당시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전국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특별부문 최우수상을 타며 이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와 북한이 더욱 진전된 관계를 가질길 희망했어요.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돼 순수한 마음으로 바란 희망이 이뤄지지 않을까봐 내내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회복될 것 같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고자 했던 노력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되게 만든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통일이라는 관문으로 향하는 한줄기 빛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참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서 남북정상회담 참가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하고 싶다는 사연을 적어 제출했어요. 결국 제 사연이 선정돼 남북정상회담 당일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 기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Q2.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주변국 기자들은 물론, 우리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국가들의 기자들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를 보며 전 세계가 남북정상회담을 주목한다고 느꼈어요.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것에 대한 관심일수도 있지만 핵문제 때문에 외신기자의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2000명이 넘는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때 환호성을 지르는 데 온 몸이 전율이 느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할 때 앞에 있던 외신기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괜히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참석했구나’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네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이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노력한다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많은 앵커들이 실시간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하는 모습과 국내 기자가 외신 기자와 인터뷰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또 취재하는 기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5G와 가상현실체험(VR)과 같은 여러 최신 기기를 체험할 수 있게 장소도 마련돼 있었고, 물과 음식도 제공 받았어요. 많은 기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역사적 순간의 현장에 있던 하루였기에 정신적으로 저를 풍요롭게 해준 것 같아요.

Q3.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국민이 직접 정책현장을 취재해 기사와 사진을 제공하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연령제한이 없어 한 기수에 10대에서 60대까지 여러 연령층이 섞여있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하나의 정책에도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데, 전 연령대가 섞여있는 만큼 서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패밀리(Familiarization

tour)라고 해서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한민국정책기자단에 관심이 많아 직접 기사를 초청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줄 만큼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회담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2007년 경우는 고(故)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지속되기 어려웠던 점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국회 비준과정도 없어 영속성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11년간 10.4선언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해도

본스라시아 등 여러 나라에게 지지를 받으며 탄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요.

Q5. 본인에게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북한과 미국 사이 중재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대화를 거부했던 북한이 마음을 여는 데 문 대통령과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북한이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하는 ‘호의’를 베풀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벽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항으로 나가 이들을 맞이했어요. 서로에게 으름장을 놓던 두 나라의 정상이 덕담을 나누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될 북미정상회담에 일단은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저에게 있어 남북정상회담은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아주 잘 실현시켜준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된 대단한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고 생각해요.

Q6. 정책기자단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학부를 다니면서 대학생으로서, 20대로서 할 수 있는 외부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학교 안에만 있으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의 특권인 열정과 패기를 살려보고 싶었죠. 해외봉사, 멘토링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2014년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활동을 알게 됐어요. 평소 작문을 즐겨하는 제 특성에도 맞고 무엇보다도 제가 쓴 글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활동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간 쓴 기사가 약 160여 건 정도가 돼요. 그 중 기억에 남는 기사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얼마전 문재인 정부 1년을 돌아보며 쓴 기사인 것 같아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 평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간의 행보를 제가 그간 썼던 기사들, 경험들과 결부지어 작성한 바 있지요.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과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을 잘 유지해줄 것이라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 상황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또한 더욱 좋아질 것이라 확신해요. 이밖에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직접 경험하는 현장기사, 외교성과 또는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풀어나가는 자료기사를 작성했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웃음).



▲남북정상회담 이벤트에 참여한 전형



▲메인프레스센터 남북정상회담 시작 전 모습

Q4.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이번해 남북정상회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속성’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남북정

무방해요. 하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은 앞으로 임기가 4년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